

혈세 750억원 먹은 광주 제2순환도로 맥쿼리와 재협상

통행량 급증 근거 생겨
이르면 내달 초 첫 협상
MRG 폐기 여부 등 주목

광주시가 지난 12년간 혈세 750억원을 보전해줬던 제2순환도로 3-1구간(호덕IC~풍암택지·3.53km)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그동안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계약에 따라 이 구간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부족분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운영비 일부를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17일 "최근 제2순환도로 3-1구간 대주주인 맥쿼리 측이 'MRG폐기를 비롯한 기존 사업구조를 재조정하자'는 내용의 광주시 요청에 대해 협상의사를 보여왔다"며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첫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맥쿼리 측은 광주시의 협상 요청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며, 자본구조의 변경이 없는 만큼 지금은 협상 시기가 아니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이 구간의 통행량이 크게 늘면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광주시와 맥쿼리는 최근 면담을 통해 협상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고, 조만간 MRG 폐기 등을 논의하는 정식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MRG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해 도로 등을 건설한 뒤 통행비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적으면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3-1구간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주)에는 맥쿼리(75%)와 교직원공제회(25%)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광주시는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51억~72억원씩 그동안 총 750억원을 광주순환(주)에 보전해줘야 했다.

그러나 최근 하이패스 개통으로 이 구간의 통행량이 크게 늘자 광주시는 맥쿼리와 협상을 추진해왔다. 광주시에 따르면 3-1구간은 지난해 하이패스 개통 전 대비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이 10~17%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으로 MRG를 폐기할 경우, 운영비 중 일부를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매년 10억~20억원가량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늘어 시의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시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암매장 옛 광주교도소 현장답사 5·18 당시 행방불명자 발굴조사 관련 현장답사에 참여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8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내 수감시설 옥상에서 지형지물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를 주관하는 5·18재단은 19일까지 현장을 확인한 후 고고학·법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계획을 세워 유해 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안대표측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추진” 호남 중진들 “어설픈 연대는 자멸의 길”

뉴스 초점
국민의당·바른정당
지방선거 연대 이뤄질까

보수 야당들의 통합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잔류파와 통합교섭단체 구성 및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하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은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연대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안 대표가 보수 야당들의 통합시 바른정당 잔류파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운천 의원 등 바른정당 인사들과 지난 추석 연휴 전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바른정당 잔류파와 국민의당 간의 통합 교섭단체 구성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에서는 당 지지율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정당

당 정책연구 비밀 여론조사
“바른정당과 통합 더 유리”
국감 이후 갈등·분열 일 듯

잔류파와의 연대 및 통합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흔들 어 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현역 광역단체장인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물론 유승민, 정운천 의원 등의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통합할 때보다 바른정당과 통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와 제2차당위위원회의 시도당·지역위원장 일괄사퇴 안도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백악이 무효인 상황 아니냐”며 “당장 연대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중진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감이 진행되고 있

는 상황에서 당의 전열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들의 통합 여부도 국감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예정이라는 점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호남 민심은 정체성이 다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어설픈 접근은 오히려 자멸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 진영의 바른정당과의 연대론이 오히려 국민의당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호남 모 중진 의원은 “안 대표가 조금 성급한 것 같다”며 “바른정당과 연대를 검토하기에 앞서 당내 결집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목포 출신…文대통령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목포 출신인 유남석(60·사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유 후보자는 현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현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 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되면서 비로소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유 후보자는 “지명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3회, 연수원 13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FTA 재협상…농업 양보 절대 없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농업 부분의 양보는 절대 없다”며 “이번에는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5면>

김 장관은 지난 1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과의 FTA에서 국내 농업 부문 적자가 61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내년 개편이 이뤄진다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나타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품질 인증 관리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등 생산 관리를 쌀 값 안정화에 나서는 한편, 과채류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평년 가격의 80% 보장해주고 생산 과잉에 대해서는 물량조절에 나서는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성분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담™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킨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킨스토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